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3년 주님의교회 표어



462
2023.1.15.
신년호

오늘의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와 그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_ 사무엘상 14:6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4 | 신년설교 | 8-9 | 소망의집 | 10 | 교회사용설명서 |
| 5 | 유아유소년숲 공과 | 9 | 교사일기 | 11 | 십자말씀이 |
| 6-7 | 부임인사 | 10 | 남녀선교회감사예배 | 12 | 신춘문예 / 어와나 |



누군가 하겠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새해에는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결단을 한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잘해가면 될 것이고, 지난해에 하지 못한 것들은 새로운 계획으로 다시 한번 도전한다. 주님의교회도 새로운 표어를 외치며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이다. 꿈꾸는 것과 세우는 것은 다르다. 무엇을 세운다는 것은 힘을 써야 하는 일이다.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것은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실천의 영역이다. 교회의 사역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반드시 누군가의 힘과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 일에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 움직임이 필요한 일에 나는 포함하지 않는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 앞에서 그 누군가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실천하는 주님의교회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

- 4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5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작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와 가정을 연계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고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두 핵심중 하나인 선교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두 핵심은 교육과 선교입니다. 핵심 중 하나인 교육에 대해선 가정이 신앙의 주체라는 주제로 재작년까지 4년간 가정이 중심된 교육에 치중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덮쳐서 불편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가정이 신앙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다음세대 교육의 현장이 가정이 되어가는 뜻깊고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짐으로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연결되어 그 교육을 실제화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과 제한이 있었던 것이 우리의 불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 우리는 작년부터 가정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핵심 내용 중의 한 부분인 선교를 주제로 믿음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이 중심이 된 선교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선교의 삶을 나누는 그 현장이 바로 교육의 현장>이기도 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두 핵심인 교육과 선교가 함께 어우러지고 실제적 믿음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용어는 1952년 빌링겐에서 열린 국제선교사 대회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일상 속에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선교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지명해서 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명해서 주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게 하시는데, 주께서 하실 일을 나를 지명해서 내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한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모든 행위의 주체자가 사람이 아닌 주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체자는 주님이시고 사역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_ 고린도전서 3:4-5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바울과 아볼로의 삶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역할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교우들은 자신이 바울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아볼로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바울이나 아볼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고린도교회 교우들은 바울의 능력이고 아볼로의 능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께서 바울이나 아볼로를 세우셔서 주께서 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들이 통로가 되어서 일을 했다고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이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나와 아볼로는 단지 주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주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전 3장 6-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6-7



바울은 사역자를 정원사에 비유합니다.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행하실 때 도구로 쓰임 받은 봉사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심었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였다는 거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아볼로는 교육을 담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자라게 하는 그 일은 자기들의 몫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죠. 개인의 생명과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생명과 성장의 주체 또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역자인 봉사자가 신앙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되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만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극복하지 못하곤 합니다. 봉사자로 불림 받은 우리가 주체가 되고자 욕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역자로 불림 받은 우리가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곳이 어느 현장이든 사역자의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우리는 단지 도구요, 통로일 뿐이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주를 대신해서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구절은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정리를 말씀을 통해 밝혀주는 아주 좋은 실례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들이 이미 나눈 바울의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사역자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또 우리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들에게 맡기실 때에 맡은 자로 최선을 경주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요, 통로일 뿐이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주를 대신해서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 같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이에 게 실제로 남겨지는 것은 단지 몇 컷에 불과합니다.

작년 2월에 돌아가신 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널리 양해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움학당을 비롯한 다른 소그룹 나눔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근무하시던 학교를 조기 퇴임하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기 전 한국에 있는 저희 삼 남매를 고향으로 부르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누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며 강권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누님이 부모님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고 몸만 들어오시라고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아내와 내려가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버님이 30년간 사립학교 선생님이시며 계시다 퇴직하셔서, 적잖은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얼마 전에 말씀을 주신 터인지라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제가 장남이니까 제 몫이 상당하리라 기대를 한 거죠. 저희 삼남매가 다 모였을 때 부모님이 저희를 안방으로 부르신 다음 봉투를 꺼내었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 패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3개가 아니라 몇십 개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 남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돈이 없었을 때는 돈 값을 능력이 안되어서 빚을 갚을 수 없었지만, 퇴직금을 받아 목돈이 생겼는데, 빚을 갚지 않으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못볼 것 같다. 그래서 퇴직금 받은 것으로 이전에 일하다 빚진 것 다 갚고 미국 들어가려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버님은 처음부터 교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절친이었던 권모씨의 보증을 써주었다가 그 분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종가집인 저희 집도 빼앗기고 사업채도 날리고 거래처에 빚만 잔뜩 남기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집에서 쫓겨나 고모 할머니집 문간방에서 한동안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은 대학시절과 졸업 후 7년간 양을 야학에서 가르치신 그 인연으로 중학교 교사가 되셨는데, 그 이후 교사를 천직으로 삼고 30여년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아버님은 30여년 전에 거래처에 진 빚을 다 갚고 미국으로 들어가시겠다고 두 동생에게는 줄 것이 없고 제게는 전세금 인상분인 200만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하남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 보증 서주다가 망해서 빚을 다 갚지 못하고 빚잔치를 한지 삼십여년이 지났지만 그 사람들을 찾았고, 당사자가 돌아가신 분들은 그 자녀들을 찾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자까지는 갚지는 못해도 원금은 다 갚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하시던 순간의 아버님의 얼굴이 제 인생에 가장 강렬하게 남겨진 제 아버님의 한 컷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을 때는 불가능했지만 목돈이 생겼는데도 빚 갚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차마 뵈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말씀은 지금도 한 번씩 제 생각과 마음속에 메아리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버님처럼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자 씩씩하고 삽니다. 그리고 저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뿐

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도 받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더욱 충실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슴을 칠 때도 때때로 있지만 저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제 아버님은 예수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제게 제 아버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가정에서 세우는 역할모델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해 실제 삶에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31절을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_ 신명기 1:30-31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셔서, 그것도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주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통로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서 우리는 우리 몫의 할 일에 최선을 경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들이 주님의 그 속마음을, 주님의 그 손길을 꼭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은 것처럼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 갈 길을 앞장 서서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존재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9

동역자, 밭, 집의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역자들이란 헬라어 ‘쉴레르고이’를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밭에 해당되는 헬라어 ‘게오르기온’은 신약성경에서 딱 한 곳, 이곳에만 나오는 표현으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집은 헬라어 ‘오이코도메’를 번역한 것으로 역시 교회를 가리킵니다.

동역자란 의미가 새삼 새롭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명하여 행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주로 교회를 통로로 일하심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1883년 커네티컷 주의 하트포드에서 열린 전국 신학생대회에 언더우드는 뉴브루스윅신학교 대표로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알버트 울트만스 목사가 선포합니다.

“지금 조선은 천 삼백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나라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 민족을 위해 선교사로 가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끝났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더우드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언더우드, 왜 너는 안된다고 하느냐?” “저는 인도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너는 안된다고 하느냐?” 언더우드는 마침내 눈물지며 이렇게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1885년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조선에 실제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누가 대신해서 하였습니다? 언더우드가 나섰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언더우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가 대신해서 감당하고자 조선 땅을 밟았던 것입니다. 그가 조선의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았을 때 복음의 빛이 조선 땅에 비치어 조선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 사역의 현장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로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명하시매 그가 그 도구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선교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함으로써 존재한다”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은 선교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서 바울처럼 언더우드처럼 우리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경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주일을 맞아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고자 소망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믿음의 삶은 예수께서 공생애 사역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삶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육과 선교에 더욱 열심을 경주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올 한 해는 가정이 중심이 된 선교를 각 가정에서 세워감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주님의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선교가 가정 가정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증거되는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소식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자비로우시며 함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교회 유아숲과 유소년숲은 총회공과인 “사랑 신고 씽씽”과 “제자플랫폼”을 사용하며 동일한 말씀을 배웁니다. 교회와 가정, 교사와 부모가 함께 하는 신앙교육 위해 유아유소년숲 3주간의 공과내용을 연재합니다. 교사와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공과로 말씀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함줄함울

하나님! 자비로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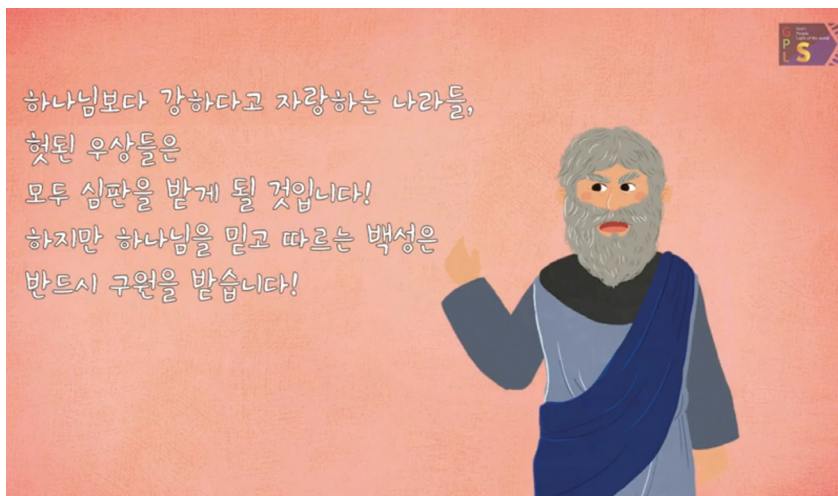
1월 15일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잘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며 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큰 죄를 짓고 있음을 보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백성들을 용서해주셨습니다.



자비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1월 22일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왕국은 앓수르와 같이 힘센 주변 나라들로 인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들과 다른 나라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자랑하는 나라들, 헛된 우상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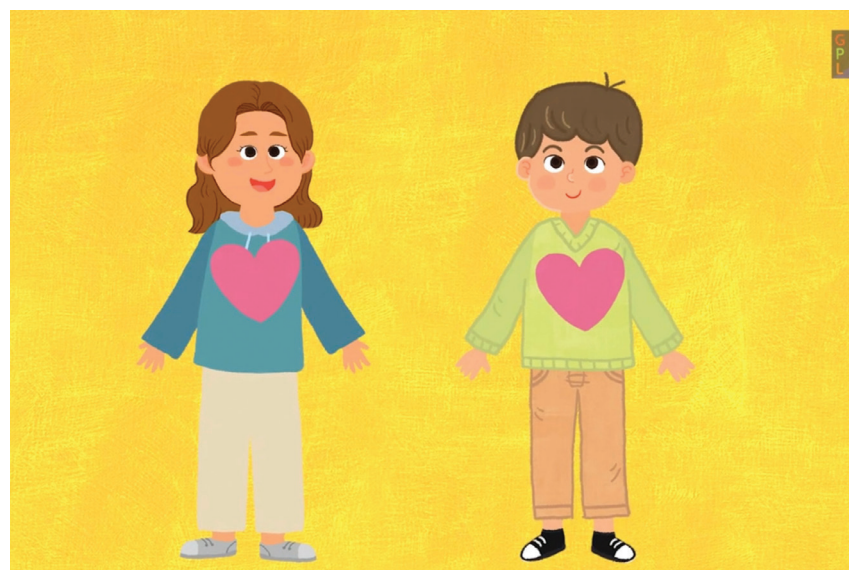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이사야를 통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으니 두려워말라고 하시며 승리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1월 29일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중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만큼 큰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함줄함울

부임인사

할렐루야, 인사드립니다



청소년을 품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청소년숲 비전트리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한 김계원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사랑으로 품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넘어 다음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사로 세워지기 위해 열정과 힘을 다해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또한 훌륭하신 교역자분들과 선생님들께 겸손하게 배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김계원 전도사 / 청소년숲 고등부

서로가 서로의 삶을 깊이 위로함으로

샬롬♥ 장애인사역부 김은선 목사입니다. 올해부터 장애인사역부와 뷰티풀페어런팅센터(BPC)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맡겨주신 사역들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준비함으로, 교회와 부서 내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은총의 시간들을 풍성히 누리는 일상의 삶들이 되도록 묵회하며 힘쓰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되는 예배와 더불어 서로가 서로의 삶을 깊이 위로하는 참 사랑의 교제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추운 시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고, 함글함글하는 뜨거운 마음을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장애인사역부와 뷰티풀페어런팅센터(BPC)에 속한 가정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 목사 / 장애인사역부, BPC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Hi! It's so great to be here! 주님의교회 성인 영어 예배부를 섬기게 된 김지민 전도사 합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교회를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교회에 있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주님의교회를 사랑하고 역사하시는지 너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통하여 성인 영어 예배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하고 우리 전 주님의교회 교우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민 전도사 / 영어예배부

주님의 발자취 따라 걷는 발걸음

샬롬! 큐티사역부/젊은이분과를 담당하여 섬기게 된 박준범 전도사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주님의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으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조금씩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본이 되신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동역자분들 옆에서 감사함으로 도우며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매일 “주님과함께”걸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범 전도사 / 큐티사역부, 젊은이분과, BPC 결혼예비학교



부임인사



유아숲에서부터 시작되는 첫걸음

샬롬~! 주님의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영아부를 섬기게 된 이영선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의 첫걸음은 유아숲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귀한 첫걸음을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와 주님의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루어 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선 전도사 / 유아숲 영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따라

샬롬! 유아숲 총괄목사로 부임하게 된 이윤경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교회에 부임하게 되어 새해 시작부터 감사가 가득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스러운 아기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들과 가정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유아숲 아이들과 가정의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유아숲 교역자들과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유아숲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경 목사 / 유아숲



새로운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전임전도사로 섬기게 된 이충만 전도사입니다. 지난 3년간 준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전임전도사로 청년부를 섬기고자 합니다. 많은 변화와 갈등, 신앙의 고민들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향하여 서겠습니다. 청년들과 같이,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세워질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충만 전도사 / 청년부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쓰여지길

샬롬,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실 때에 통로로 쓰임 받길 소망하는 청년부 조수희 전도사입니다. 먼저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여정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 노력하며 이 땅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저 또한 묵묵히 옆에서 힘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수희 전도사 / 청년부



소망의집을 소개합니다

소망의집은 18명의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1990년 5월 25일에 문을 열었으니 어느새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간이 언제 그렇게 갔을까요?

주소 : 경기도 하남시 고골로 242번길 93
전화 : 031-791-4972
대표 : 박현숙 원장 (010-3734-4971)

언제나 즐거운 나들이

오경아, 대훈아, 재권아 뭘 보고 웃고 있어? 뭐 좋은 일이 있어? 아하! 남한산성에 간다구? 그래 잘 다녀와 솔직히 말해봐. 정말 남한산성이 좋은 거야? 아니면 원장님이 사주시는 간식이 좋은 거야? 둘 다 좋다고? 알았어! 잘 다녀와~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아 참 기쁨이는 은혜누나 손을 잘 잡고 다녀야 해.



소망의집 겨울나기

소망의집은 김장을 1년에 800포기 정도 합니다. 식구들이 겨울 내내 김치만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김치가 없으면 내년 봄까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저 바쁜 손길들이 보이시나요? 소망의집 직원들보다 봉사를 와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소망의집은 40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틈나는 대로 도와주십니다. 이분들이 계시지 않는 소망의집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잠시 쉬었다가 하시라고 말씀드려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다음은 네 차례야. 기다려!

이 사진은 박현숙 원장님이 제 23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사진전에서 상을 받으신 사진입니다.
때는 물론 여름입니다. 원장님은 지금 대훈이에게 신나는 물세례를 주고 있지만 곧 은혜에게도 물세례를 주실 생각이지요. 조금은 긴장하고 있는

은혜의 모습과 활짝 웃는 원장님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게 보입니다. 아이들을 하루에 몇 번씩 씻겨도 여름이 훨씬 더 좋다고 하시는 소망의집 원장님입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강릉 경포대입니다. 바다가 보이시나요? 조금 흐려서 창밖으로 바다가 있는데도 선명히 보이지는 않네요. 소망의집 식구들은 22년 5월 19일 강릉 경포대 강문해변에 다녀왔습니다. 소망가족 18명, 교사 7명, 자원봉사자 16명 등 41명의 대 식구가 움직이는 행사였죠. 평소 소망의집을 잘 도와주시는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생각도 못 해 볼 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나들이의 제목이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바다” 소망가족들은 모두가 이날 바다를 처음 보았답니다.



엄마의 손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더 주거나 덜 주는 법이 없지요. 그래도 항상 옆의 친구 것이 더 커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마는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씻으며 지내요. 엄마가 계셔서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인데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엄마 감사해요. 기도도 찬송도 잘 할게요. 청소도 도와 드려요. 엄마 사랑해요!



구제복지부 소식
소망의집

도움의 손길 덕분

소망의집 사역을 시작한 지는 만 5년이 되는 1995년 때의 일입니다. 당시 거여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타인과의 충돌을 가능한 피하는 성격인지라 급하게 오금동으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한 이유는 소망의집에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던 저는 인근 오금동으로 이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으로 자신이 겪은 일을 묘사하지만, 이 당시에 제가 겪었던 일을 회상해 보면 그때는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들어갈 집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했으며, 난방시설이 없는 곳에 장애인들을 눕혀야 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주방도 정리가 되지 않아 이사 후 3일 동안은 음식을 시켜 먹거나 빵 등으로 대신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흐르는 눈물을 한 손으로 닦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면서 시설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때 종사자들이나 입소자들이 모두 감기에 들어 고생했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추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습니다. 그 때 직원은 5명이었고 입소자는 30명 정도였는데 참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늘의 오늘날의 소망의집이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 많은 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 덕분임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박현숙** 원장 / 소망의집



박현숙 원장의 가장 소중한 사진 (2016년 1살 기쁨이의 입소 때)

소망의집 기도제목

- (1) 소망의집은 3기 신도시에 수용되어 있어 곧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잘 준비해서 잘 이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박현숙 원장님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 때문에 고생이 심한데 잘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사일기
어와나 스팅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AWANA? 어와나? 어와나가 뭐지? 영어로 쓰여 있으니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인가보다.

주님의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면서도 주보 뒷면의 예배 안내에 나온 어와나가 뭔지 몰랐습니다. 2017년, 저의 아이 친구 엄마의 적극적인 권유로 두 자녀와 함께 불티단(현 스팅스)을 시작하고 보니 어와나는 영어 예배가 아니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제자훈련과정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기 위해 복음 중심의 성경 암송을 하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인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AWANA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중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의 첫 글자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어와나는 1950년 미국에서 청소년 선교단체로 시작되었고 한국에 들어온 지도 40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일까? 의문도 들고 부족하지만 믿음의 세대를 키운다는 사명감으로 어느새 7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어와나인데, 오히려 제가 감동받고 변화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매주 작은 입술로 말씀을 꼬박꼬박 외울 때, 어찌 저렇게 잘 외울까 신기하기도 하고, 공정한 규칙을 배우고 지키면서 게임에 임하는 모습에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저도 자극을 받아서 말씀 암송을 하려는데 쉽지가 않네요. 핸드북 여러 권을 한 자리에서 줄줄이 외우는 멀티플 북습 완성하는 단원들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지역 어와나 성경퀴즈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외운 말씀을 필기시험, 객관식 시험, 스피드 퀴즈 등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회 예배 중에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다 알죠?”하시니 본당을 꽉 채운 아이들이 큰 소리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하면서 거침없이 외울 때는 기특하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어와나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년 반 동안 현장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해서 암송은 녹화를 통해 점검하고 활동 키트를 집으로 배송하고 zoom이나 녹화영상을 통해 소통하였습니다. 예배나 암송은 온라인으로 바꾸고 여러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게임을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드디어 교회에서 모이게 되어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단원도 줄고 무엇보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교사의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게임할 때 보조할 교사가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교사로 지원해주실 분들을 기다리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어와나의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어와나 사역에 함께 하실 분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이진원** 집사 / 어와나 스팅스

남녀선교회
감사예배

2022년 남녀선교회 감사예배

12월 28일 2022년 마지막 수요일예배는 남녀선교회 감사예배로 드렸다. 2022년을 보내며 남녀선교회 회원 중 75명의 참석자가 “작은예수”찬양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코로나로 봉사와 여러 행사가 멈추었지만 부활절을 맞아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연합으로 성전 대청소를 했고 사랑의 헌혈 행사와 협력교회 방문 등 지난 한해동안 기도와 만남으로 함께 사랑을 나눠 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다. 남선교회 연합회 이재현 안수집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남선교회 담당 이대혁 목사는 사도행전을 통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닮아가며 예수님을 전파한 말씀을 전해주었고 여전도회 담당 윤경수 목사는 남녀선교회 활동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지난 추억을 간직하게 하였다. 2022년 마지막 수요일예배에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며 2023년에도 은혜로운 모습과 건강한 모습으로 뫼기를 소망했다. 신형섭 장로



교회사용설명서⑩

설 가정예배 이해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송구영신의 풍습과 같이 설 명절은 한국의 오래된 명절이지만, 본래 기독교의 전통적인 절기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음력 설과 추석은 오래전부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을 나누고 조상을 기리는 가장 중요한 명절로 전해져 내려왔다. 오랜 세월 이어 내려온 전통인 설과 추서에 지내는 차례의 풍습 대신, 교회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린다.

설과 추석 때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조상과 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기독교인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1~3)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권면한다.

그러다보니 차례의 풍습에 따라 기독교인들도 설날이나 추석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한국적 전통이 만들어졌다. 조상에게 드리는 예배의 이름을 흔히 ‘추도예배’, ‘추모예배’라고 하기도 하는데, ‘추도(追悼)’라는 말이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슬퍼하다’는 뜻이며, ‘추모(追慕)’라는 말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다’라는 뜻이어서, 하나님보다 죽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정예배’라는 이름을 권면해 왔다.

사용 방법

2023년 설 명절을 맞아 주님의교회에서는 <설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교인들이 가정에서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다. 이 순서지는 홈페이지 ‘알립니다’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순서지는 주보와 같이 가정 안에서 인도자를 세우고 순서에 따라 “예배로 부름-신앙고백-찬송-기도-성경봉독-말씀나눔-기도-찬송-주기도문”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가정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가정예배 주신 기도제목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전통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모님이나 조상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서로 친교를 도모하는 경건한 예배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가정예배이다. 기독교인의 본분을 지키며 가족과 이웃 사이에 서로 사랑을 듬뿍 나누는 명절 되기를

기원한다.

설교문

“이 땅도 영화롭게 하소서”

세해를 맞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것이 평강의 왕, 곧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자녀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의 고통으로 죽음과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도리어 평강의 메시지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옛날 사람의 기쁨은 크게 두 가지, 농사 결실을 거두는 추수와 전쟁에서 이긴 보상으로 물건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과 전쟁의 사상을 깨는 평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의 말대로 선민을 시작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평강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되지 않고 드려야겠습니다. 평강은 평안, 평화, 살림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왕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가지도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주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의 것과 다른 ‘살림’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미움을 잊게주시며, 국가 간의 분쟁과 싸움을 주님에게서 막으십니다. 영원한 살림을 주님께 받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이사야의 빛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인 국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는 땅에서는 말씀의 안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사 60:1)고, 말함의 뒤에는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신다’고 받쳐 주고 있음을 봅니다. 빛을 바라볼 때마다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기도가 필요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이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회복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디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세롭게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새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방향이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평안과 화평에서 떠나고,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의 세상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

2023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롭 1:8

가정예배순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을 따라 다시 출발하는 인생”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할 말씀)

가정 사명 선언문

2023 표어는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표어에 따라 ‘가정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 봅시다.

2023년 우리 가정은

이(가) 되었습니다!

예배로부름	시편 127:1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가운데에 계시는 찬송	다같이
기도		말씀이
성경봉독	이사야 9:1-6	말씀이
말씀나눔	이 땅도 영화롭게 하소서	인도자
기도		인도자
찬송	559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옛적에는 역외에서 스물은 땅과 남달리 땅이 밭을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배반 길로 요단 지역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2. 죽임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탄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온갖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온갖을과 달리들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 이는 그들이 무덤에 낸 땅에서 그들의 이방의 제복과 그 양제사의 막대기를 주께서 없으시되 비단옷의 남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5. 여지없이 세우는 군인들의 진과 외로운 길은 빛이 비치도다

6. 이는 한 여자가 우리에게 있고 한 사탄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정사를 맺었고 그의 이름은 기쁘게, 모시라, 찬양한 하나님이라, 영혼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룻기 / 사무엘상편

이번 호에는 <룻기>와 <사무엘상>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사무엘상>은 사사들의 통치에서 왕이 통치하는 통일 국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61호 사사기편 정답

아	도	니		가	시		요	아	스
히			기		스	엣			불
만	족		드	보	라		에	글	론
		평	온				스		
유	다			하		입	다		
	아	스	다	롯			울		에
	낙		불			블			브
마		소	산		메	레			라
노		쿠		하	로	셋	학	고	임
아	모	리		루	스		대		

가로 힌트

- 사무엘이 미스바와 쉰 사이에 세운 기념비.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다. 이후 이곳을 일컫는 지명이 되었다. (삼상 7:12)
- 아비나답의 아들. 기랴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와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와 궤를 지키게 했다. (삼상 7:1)
- 도토리과 비슷하게 생긴 열매. 참나무과에 속하는 ○○○ 나무에 열린다. 떫은 맛이 나서 그냥 먹기는 어렵다. (삼상 10:3)
- 유다의 4대 손.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조부이다. (룻 4:20)
- 블레셋 해안 지대에서 남동쪽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골짜기.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싸운 곳이다. (삼상 17:2~19, 21:9)
-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선지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다. (삼상 10:1, 16:13)
-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의 아버지. 암나귀를 잃자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라고 명령하였다. (삼상 9:1)
- 블레셋 5대 도시 중 하나. '술 짜는 틀'이란 뜻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빼앗은 법궤를 이곳으로 옮기자 가드에 살던 사람들이 독종 재앙을 받았다. (삼상 5:8~9)
- 가나안 및 수리아에서 섬겼던 남성 신. '주' (lord) 혹은 '소유자'라는 뜻이다.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이 우상의 영향을 받았다. (삼상 7:4, 12:10)
-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해 남편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멸시를 당했으나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았으며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 (삼상 1:28)
- 룻의 남편이자, 다윗의 증조부. 살몬의 아들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았으며, 부유한 농부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율법에 순종하여 가난했던 나옴과 룻을 도와 주었다. (룻 2:1~23)
-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 레위 자손이었던 그는 모세의 형이었으며 동생 모세가 출애굽의 소명을 받은 후 그의 대언자로 일했다. (삼상 12:6)
-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곳의 지명. '지켜보는 자' (망대)라는 뜻이며, '망대'라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기도 했다. 요단 동편 모압 지방에 있던 성읍으로 다윗이 모압 왕을 만나 자신의 부모를 부탁했던 곳이다. (삼상 22:3)
- 유다 지파의 북쪽에 위치한 성읍. 사울 왕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전세가 불리해지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왔으나 에벤에셀에서 빼앗기고 말았다. (삼상 5:1)
-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신의 이름. '물고기', '곡식' (옥수수)이라는 뜻이며, 풍요와 생산의 신으로 바알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이 신의 신전에 두었을 때 신상이 엎드러지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다. (삼상 5:1~5)
-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곳의 지명. '굴러갔다'는 의미로 여러고 동편 지역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의 이름이기도 하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은 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곳인 동시에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이기도 했다. (삼상 11:14~15, 13:4~15)

세로 힌트

- 블레셋의 주요 5대 도시 가운데 하나.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사이의 국경 지대에 위치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에 빼앗겼을 때, 언약궤가 아스돗의 다곤 신당과 이곳에 옮겨졌다. (삼상 5:10)
- 실로의 대제사장. 사사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훈련시켰던 스승이다. (삼상 3:8~9)
- 기랴여아림 사람. 블레셋에서 돌아온 여호와와 궤를 자기 집에 두고 20년 동안 아들 엘리아살에게 지키도록 했다. (삼상 7:1~2)
- 네게브 지역에 위치한 성읍. 이스라엘 영토의 남방 한계선으로 불렸다. 사무엘의 노년에 이곳에서 그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었다. (삼상 8:1~2)
- 사무엘의 아버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다. (삼상 1:19)
- 사울과 대전하는 블레셋 군대 중 한 부대가 나아간 골짜기의 이름. (삼상 13:18)
- 사사 시대에 살았던 모압 여인. 유대인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결혼했다가 과부가 되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옴을 따라 유대 땅으로 갔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룻 4:13)
- 가나안 우상 중 하나.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대표적인 우상 가운데 하나로, 모압에서는 그모스의 배우자였다. 바벨론과 앗시리아에서는 풍요와 사랑의 여신으로 숭배되었다. (삼상 12:10)
- 하늘에서 작은 물방울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기상현상. 분명은 정지훈이며 박진영에게 발탁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된 가수의 예명이기도 하다. (삼상 12:18)
- 이스라엘의 지도자.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 (삼상 12:8)
-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도시.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이곳으로 가져 갔다. (삼상 5:3~4)
-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인들을 추격한 장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우뢰에 놀라 어지러워하다가 패하고 말았다. (삼상 7:10~11)
-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여덟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난 사람.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장에 나아가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죽이고 승전하였다. (삼상 17:50)

2023 함글함글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작

사람이란

고경봉

먼지로 빚어졌어도

세상 지으신 이를 닮았고

시들어 버릴 풀잎이지만

꿈을 먹고 산다

사라질 안개라 해도

세상 귀한 것들 다 받아

우려낸 은혜의 향으로

주눅 든 가슴이

기지개를 켜다

함글함글 공지

제3회 함글함글 신춘문예 결과를 발표합니다

2023년 함글함글 신춘문예 당선작

시 부문 : <사람이란> 고경봉 집사(2교구)

수필 부문 : <새벽종> 전복례 권사(7교구)

간증 부문 : 당선작 없음

응모 현황과 심사 경위, 심사평과 당선자 소감, 수필 부문 당선작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2023 함글함글 신춘문예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출판부**

어와나
바이블퀴즈대회

어와나 서울지역 바이블퀴즈대회

2023년 1월 7일 왕성교회(서울 신림동 소재)에서 어와나 서울지역 바이블퀴즈대회가 열렸다. 오랜만에 현장에서 개최된 대회에 주님의교회 스팅스(7~9세)는 1학년 5명, 2학년 5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개를 수상했고, 티앤티(3학년~6학년)는 3학년 7명, 4학년 2명, 5학년 9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1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상했다. 이번 퀴즈 대회에서는 좌호경, 장운하, 조현준 어린이가 티앤티의 전과정을 한번에 암송하는 멀티플 복습을 완성하여 수상하였다. **함글함글**



교회일정

1/15(주일)	정기당회
1/18(수)	4/4분기 제직회
1/22(주일)	신임서리집사교육1(오후 2:30, 소예배실)
1/25(수)	공동의회
1/29(주일)	제직수련회(오후 4:00, 대예배실) 신임서리집사교육2(오후 2:30, 소예배실)

알립니다

1. 2023 신임 서리집사 대상 교육

대상 : 만30세 이상, 교회등록 후 1년 이상 된
세례(입교) 교인

일시 : 1/15, 1/29 (2회) 오후 2:30~3:30

장소 : 소예배실(1층)

▶ 교육에 두 번 다 참석하셔야 서리집사로 임명됩니다.

2.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필사책 합본

2022년 진행된 성경필사책(VOL.4-6)을 다 쓰신 분께
성경필사책을 합본(양장 제본)해 드립니다.

제출기한 : 1/29(주일)

제출방법 : 각 교구 담당목사

문의 : 한시영 목사(010.8935.5048)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
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